

장수형 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

경로당·복지시설 열체온계·감염 취약시설 마스크 지원 등 행정력 총동원

장수군이 '장수형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외부 유입 차단 및 방역에 고삐를 조인다.

장수군은 14일 장영수 군수, 장형섭 부군수, 장기정 기획조정실장, 이흥대 안전재난과장 등 주요 실·과장 및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긴급 회의를 열고 '장수형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한다.

장수형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장수군은 예비비 1억3,300만원 투입해 경로당 및 복지시설 268개소에 열체온계 및 비접촉 체온계 589개, 감염 취약시설(식당, 종교시설 등) 769개소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비축 방역물품 6,974개를 지원한다.

어르신들의 휴게공간인 경로당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된다.

군은 또 현재 지역내 코로나19 감염

자가 0명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역 활동을 펼친다.

한누리전당 내 수영장 및 헬스장은 주민등록상 장수군에 주소를 둔 주민만 이용하도록 해 외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감염원을 최소화한다.

외부인 이용 빈도가 높은 승마레저파크(게르하우스, 말역사체험관, 승마체험장, 조랑말 놀이동산, 장수승마장)은 지난 9일부터 점정 운영중단 했다.

군은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 경제 방역을 실시한다.

군은 15~28일까지 관내 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음식점, 카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완화해 유흥시설은 집합금지에서 23시까지, 노래연습장, 음식점, 카페는 22

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영수 군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장수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비례하여 장수형 생활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해 코로나 감염증으로부터 지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예방을 무엇보다 개인의 철저한 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한 만큼 군민들은 외부 행사 및 출입, 모임 등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영수 군수는 또 공직자들에게 "위기상황에서 공직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중심, 주민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 유입방지에 행정력을 총동원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는 14일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진안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진안사랑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안군, 제2차 재난 지원금 지급

전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진안사랑선불카드 지급키로

전춘성 진안군수는 14일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진안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진안사랑선불카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에 투입되는 재원은 전액 군비로 25억6,000여만원으로 이는 행정 전 분야에 걸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경비 등으로 마련된 것이다.

신청은 재난기본소득지원금 대상자 조회 등의 절차가 마무리 되는 오는 21일부터 시작하며 전춘성 군수를 비롯하여 전 공무원이 담당 마을을 찾아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26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은 12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은 10만원씩 적립된 진안사랑선불카드 1인당 1매씩 지급하며,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처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하다.

지급된 재난기본 소득지원금은 21년 2월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1차 지난 지원금 20만원에 이어 2차 10만원이 지급되면 도내에서는 제일 많은 금액이 군민들에게 지급된다.

군은 이번 지원이 지역경제와 가계 고통을 이겨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유례없는 수혜로 군민들의 상실감이 큰 상태로 교통과 걱정분담 차원에서 제2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도내 유일의 코로나19 청정지역인 진안군을 지키기 위해 바이러스가 종식 될 때까지 군민 모두가 감염 예방과 경제 방역의 동지가 되어야 한다"며 "연말연시 지역이동, 각종모임 등을 삼가 끝까지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행정 역시 코로나19 극복과 군민의 건강 및 생활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통계청 공모 사업에 농업실태조사 선정

2021년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국비 6000만원 확보

통계청이 실시하는 '2021년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사업'에서 무주군의 농업실태조사가 선정되면서 국비 6,000만 원을 받게 됐다.

무주군은 지난 7월 통계청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1년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사업 분야에서 군이 신청한 농업실태조사가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사업은 통계작성에 필요한 기획부터 조사, 자료처리, 통계공표 및 자료 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해 지자체 담당자가 실무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통계 표준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군의 환경과 특색에 맞는 통계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농가와 농가인구의 규모와 분포, 구조 및 경영특성을 파악하고 제감할 수 있는 농업정책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 농업경영체의 주요 생산물, 생산비용과 유통비용, 생산농산물 판로처, 연간소득액 및 노동 투입력 등을 파악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청 분수대에 대형트리 점등

무주군 대형 성탄트리와 14일 불을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청 분수대에 높이 9m(둘레 24m)의 대형트리를 설치

했으며 광장 주변에는 소나무 은하수 조명과 소형트리를 설치해 운치를 더 했다.

황인홍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예

년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없었지만 대형트리의 환하고 아름다운 불빛이 주는 감동만은 어느 해보다도 컸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모두의 소망을 담은 불빛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마음, 어려워진 경제로 힘든 마음, 추워지는 날씨로 꽁꽁 언 마음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말끔하게 녹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트리 점등식(주관 무주군 기독교연합회, 무주군청 선교회)에는 무주군 황인홍 군수와 무주군의회 박찬주 의장, 무주군기독교연합회 홍철원 회장(장안교회 목사)을 비롯한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성탄축하 메시지를 나누며 대형트리 점등을 기념했다.

무주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념식 집결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에 철저를 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제2기분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무주군은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이달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도 가능하다.

이밖에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 새로 도입된 '지방세입 계좌 납부서비스(계좌이체)'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주소지 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로부터 12월 말까지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 1, 3, 6, 9월에 산납한 차량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납 후 말소했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말소일(양도일) 이후 나머지 기간만큼 환급된다.

무주군청 재무과 세정팀 김선규 팀장은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며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내 납부해줄 것"을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청 광장서 동향지역 아동센터 차량 전달식 가져

진안군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는 14일 진안군청 광장에서 동향지역아동센터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관계자들 10명이 참석해 뜻깊은 전달식을 가졌다.

이 차량은 모금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 사회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된 것으로 동향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등·하원 할 수 있어 그동안 센터 이용 아동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게 됐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의 희망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센터를 다닐 수 있는 방안이 생겨서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동향뿐만 아니라, 진안군 전체에서 안심하고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마령면 '복지허브화 연합모금' 업무협약

진안군 마령면(면장 양수현)은 14일 '마령면·마령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지허브화 연합모금'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복지허브화 연합모금 협약은 지역 중심의 민간 자원 확대·발굴을 통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맞춤형 배분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성을 위한 것으로 마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업체·단체·개인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자율모금해 재원을 마련하고, 협의체 기부전용계좌 개설 등을 통해 공동모금회에서 관리하게 된다.

마령면과 마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 기부금을 가지고 집수리, 물품지원, 학원비, 교복 등 협의체에서 직접사업을 통해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밑반찬배달, 삼계탕봉사, 김장봉사, 생필품구리미 등 지역실정에 맞는 협의체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